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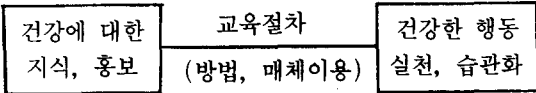
# AIDS의 대국민 계몽교육 현황

오 대 규  
 (보건사회부 보건교육과)

(目 次)	
I. 서 론	III.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II. AIDS전파양식과 문제점	IV. 맺는 말

## I. 서론

보건교육은 바람직한 건강행위(습관)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추진하는 모든 학습경험(과정)을 의미한다. 즉 강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가 건강한 행동양상으로 습관화 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 교육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교육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의 행동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따라서 보건교육은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서 시작하여 개인으로,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건교육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하여는 인간의 행동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구조, 가치관, 생활습관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기타 여러가지 요인을 알아야 하며, 또한 보건교육의 양과질, 그리고 전달방법등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88년 1월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보건장관 회의에서는 15개항에 달하는 런던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AIDS는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므로 참석한 150

개 국가는 예방전략을 즉시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 주용내용은,

- ①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AIDS예방과 억제에 위한 유일하고도 중요한 수단은 정확한 정보와 보건교육이며,
- ②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위에서 AIDS예방과 억제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고,
- ③ WHO의 범세계적인 AIDS대책에 발맞추어 모든 나라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과 협력을 하며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정보와 원조를 실시할 것 등이다.

## II. AIDS의 전파양상과 문제점

AIDS는 미국 임상사들의 주의깊은 관찰을 통하여 새로운 질환으로 인지되어 1981년 최초로 임상에 보고된 후 의료계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짧은 기간동안에 종족, 남·여의 성, 종교, 사회적 계급,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140여 개국 88,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 보고되었고, 보고되지 않는 수나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간 계속하여 환자가 발생하리라 생각된다.

다행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전과경로는,

1. 성접촉을 통하여 성병과 동일한 역학적 특성을 보이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과
2. 혈액 및 혈액제제를 통한 전과
3. 감염된 모성으로부터의 태내감염, 출산시 산도에서의 감염, 출산후 모유를 통한 감염인데 이 두 번째와 세번째 전과에 의한 감염을 가장 비극적

인 희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번째 전파는 정부차원에서 모든 혈액, 혈액제제에 대한 AIDS검사실시로 차단되고 있으며, 세번째, 전파경우는 아직, 임상 부중 감염자가 없어 문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의학적인 발전에 힘입어 이 질병의 발생 및 전파기전이 밝혀진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 질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현명히 대처하는 한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 AIDS와 관련하여 남은 주요한 문제는,

1. AIDS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학적인 문제와,
2. AIDS환자에 대한 엄청난 치료비에 어떻게 대처,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문제
3. AIDS환자, 감염자에 대한 강제적인 격리, 수용치료, 체형등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해결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 Ⅲ.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AIDS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홍보와 교육이며, 특히 홍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우리는 매스컴이 이미 AIDS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정부의 AIDS 예방 홍보 추진현황을 소개한다.

#### 1. 목적

국제행사에 따른 내·외국인의 왕래가 급증하여 AIDS감염자의 입국이 예상되고 감염자가 내국인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어 AIDS에 대한 국민의 예방 의식 고취로 감염 예방에 기여코자 함.

#### 2. 방침

- 정확한 지식보급 및 예방의지 고취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 감염예방기구의 적극적인 보급 및 활용
-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 확대 실시.

#### 3. 세부계획

- 가 홍보계몽
- 1) 기본방향

- 심각성 부각으로 경각심 고취
- 정확한 지식보급 및 예방요령의 실천홍보
-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한 예방의지 고취

#### 2) 홍보 방법

가) 방송등 홍보매체에 의한 계몽

○문공부 협조 및 홍보기관과의 협조로 지속적인 홍보

○보건관련단체 등의 간행물에 의한 홍보

나) 대상별로 적합한 홍보물 개발 보급

○해외여행자용 :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및 AIDS 예방의 자신감 부여(팜프렛)

○국내입국자용 : 내국인에게 감염이 의심될 때와 국내에서의 예방 요령강조(팜프렛)

○외국인용 : 외국인에게 감염이 의심될 때 체재 중의 예방 노력 강조, 원하는 경우 AIDS검사 무료 실시(팜프렛)

○감염우려계층용 : 예방기구의 사용 없이는 누구와도 상대하지 않는다는 의식강조(팜프렛)

○대국민홍보용 : 건전한 성생활이 AIDS 예방임을 강조(포스타,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다) 전문광고 업체를 통한 계몽

○국민건강 계몽 광고를 승인받은 업체등 활용

○제작 홍보물 제공

#### 3) 홍보기간

○팜프렛 : 6-7월부터 각 공항등에서 해당계층에 배부 및 선수촌에 활용

○포스타 : 8월에接客업소, 약국, 의원 및 제시한 가료에 부착

나. 감염예방기구 활용 보급

1) 칫솔, 면도기 등의 1회용 사용 권장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의 협회와 적극 협조

2) 침등 문신이나 귀볼 뚫는 기구의 1회용 또는 철저한 소독후 사용지도

○해당 단체 및 관련부서 적극 협조

3) 전파예방기구(콘돔)보급

○콘돔구입이 용이하도록 약국, 소매점등에서의 판매 권장

○대형건물 및 주민왕래가 많은 지역, 화장실에 자동판매기 설치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등에 콘돔자동 공급기 설치

○판매기 제조업자 및 관련부서 협조

다. 감염우려 계층의 검진 확대

## 1) 정기 검진강화

○ 검진목표 : 13만명

○ 대상 : 특수업태 종사자, 유흥접객부,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터키탕 입욕보조자등 성병 검진대상자

○ 검진시기 : 6월이전 전원 1차검사

○ 검사기관 : 각시도 보건연구소

## 2) 외향선원등 내국인 입국자 검진

○ 입국자 전원 수시 검진

○ 검사기관 : 서울등 각 국립검역소(12개소)

## 3) 내·외국인의 검사 희망입국자 검진

○ 검사대상 : 장기 해외취업자등 내국인 입국자, 검사를 희망하는 외국인등

○ 검사기관 : 서울, 김해검역소

라. 효율적인 감염자 관리

## 1) 의료인의 감염자 관리 요령 홍보 및 자체규정 제정 유도

○ AIDS감염자에 대한 과민 반응 해소

○ 환자관리에 대한 자신감 부여

○ 감염자에게 질병 극복의지 부여

## 2) 지정 전문진료 기관의 진료관계자 자체교육

○ 교육대상 : 의사, 간호원등 의료인과 진료에 종사자 전원

○ 교육시기 : '88. 7월부터 실시

○ 교육자료 : 보사부 제공

- AIDS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

- 감염자 관리요령 설명

- 감염자 비밀유지의 필요성 및 방법

- AIDS 예방 비디오테이프 홍보물 방영

## 3) 지정 전문진료 기관에서의 감염자 관리 강화

○ 지정된 감염자에 대한 질병 진료 및 건강상태 확인

○ 담당 전문의사 지정 진료로 철저한 비밀유지

○ 감염자와 담당의사와의 인간적인 유대형성으로 은둔화 예방

## 4) 외국인 발견 감염자 관리

○ 감염사실 및 주의사항 통지

○ 예방요령 주지 및 출국 종용

○ 법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조로 강제출국 조치

## IV. 맺는말

그동안 정부와 언론계에서는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AIDS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주위에 AIDS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태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일례로 일상적 접촉, 모기등 곤충에 의하여는 AIDS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근거가 희박한 민간요법, 사약(Placebo)등에 의한 치료시도로 어차피 곧 죽을 사람 하나쯤 실험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비이성적이고, 지나친 태도와 행동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AIDS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오해를 들 수 있다. 일부 언론, 국민중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애국심까지 내세우며 여론을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가기도 하지만 그릇된 인식에 따른 사회적 가치붕괴는 AIDS의 직접적 피해보다 더 클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AIDS 예방의 상세한 지식전달과 함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며 이 문제는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도 강조된바 있다. AIDS 예방에 관한 홍보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관련 전문가(예 : 보건당국, 의학계, 언론계, 법조계, 홍보전문가, 보건교육전문가, 사회학자등)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장단기 계획을 세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홍보의 매체별 분담, 내용의 구성, 용어의 선별, 중점대상 파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보다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보와 교육은 반드시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온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보건당국과 언론계가 방심하는 국민을 경계하는 개개인으로 만들어 AIDS 예방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의식을 실제화, 행동화하도록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